

개정증보판

요한 계시록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읽다

최용진



요한계시록 해설

요한계시록,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읽다

목차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5
1.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5
2. 목적과 중심 메시지	5
3. 구약과 상징을 읽는 방법	6
4. 이 해설의 주요 참고 주석과 구조	7
계시록 해석의 길잡이	9
5. 계시록의 주요 해석 방법	9
1) 역사주의	9
2) 과거주의	10
3) 미래주의	10
4) 이상주의 또는 상징주의	11
5) 절충주의	11
I. 프롤로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계시 (1:1-8)	13
1. 계시의 성격과 복 있는 독자 (1:1-3)	13
2. 삼위 하나님의 인사와 그리스도의 구원 (1:4-8)	14
II. 교회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1:9-3:22)	17
1. 인자 같은 이의 환상 (1:9-20)	17
2.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2:1-7)	19
3.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 (2:8-11)	20
4. 타협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 (2:12-17)	21

5.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2:18-29)	22
6. 살아 있다는 이름만 가진 사데 교회 (3:1-6)	23
7.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3:7-13)	24
8.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3:14-22)	25
III.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양 (4:1-5:14)	28
1. 하늘 보좌와 창조주의 통치 (4:1-11)	28
2. 두루마리와 이기신 어린양 (5:1-7)	30
3. 어린양께 드리는 새 노래 (5:8-14)	31
IV. 일곱 인: 심판 가운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 (6:1-8:5)	33
1. 네 기수와 제한된 심판 (6:1-8)	33
2. 순교자들의 탄원과 하나님의 때 (6:9-11)	34
3. 어린양의 진노와 마지막 날 (6:12-17)	35
4. 인 맞은 십사만 사천 (7:1-8)	36
5. 모든 민족에서 나온 큰 무리 (7:9-17)	37
6. 일곱째 인과 성도들의 기도 (8:1-5)	38
V. 일곱 나팔: 경고의 심판과 교회의 증언 (8:6-11:19)	39
1. 처음 네 나팔과 피조세계의 심판 (8:6-13)	39
2. 다섯째 나팔: 무저갱의 메뚜기 (9:1-12)	40
3. 여섯째 나팔: 유브라테의 네 천사와 회개하지 않는 세상 (9:13-21)	41
4. 열린 작은 두루마리와 요한의 사명 (10:1-11)	42
5. 측량된 성전과 두 증인 (11:1-14)	43
6. 일곱째 나팔과 완성된 나라 (11:15-19)	45

VI. 용과 두 짐승에 맞선 어린양의 백성 (12:1-15:4) 46

1. 여자와 아이와 붉은 용 (12:1-17) 46
2.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1-10) 48
3.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 (13:11-18) 49
4. 시온산의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 (14:1-5) 51
5. 세 천사의 선포와 성도의 인내 (14:6-13) 52
6. 땅의 추수와 진노의 포도주 틀 (14:14-20) 53
7.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15:1-4) 54

VII. 일곱 대접: 완성되는 하나님의 진노 (15:5-16:21) 55

1. 증거의 장막에서 나온 일곱 천사 (15:5-8) 55
2. 처음 네 대접과 의로운 보응 (16:1-9) 55
3. 짐승의 보좌와 아마겟돈 (16:10-16) 56
4. 일곱째 대접과 바벨론의 붕괴 (16:17-21) 57

VIII. 바벨론과 두 짐승의 멸망 (17:1-19:21) 59

1.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 (17:1-18) 59
2.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몰락 (18:1-24) 61
3. 어린양의 혼인 잔치 (19:1-10) 62
4.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 (19:11-21) 63

IX.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 (20:1-15) 65

1. 사탄의 결박과 성도들의 통치 (20:1-6) 65
2. 사탄의 마지막 반역과 멸망 (20:7-10) 69
3. 크고 흰 보좌와 둘째 사망 (20:11-15) 70

X.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21:1-22:5) 72

- 1.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21:1-8) 72
- 2. 어린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21:9-21) 74
- 3. 성전과 밤이 없는 성 (21:22-27) 75
- 4.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22:1-5) 76

XI. 에필로그: 내가 속히 오리라 (22:6-21) 77

- 1.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22:6-11) 77
- 2. 상을 가지고 오시는 알파와 오메가 (22:12-17) 78
- 3.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22:18-19) 79
- 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20-21) 80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1.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신 계시이며(1:1), 동시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1:4, 11), 교회가 듣고 지켜야 할 예언의 말씀이다(1:3; 22:7, 10, 18-19). 그러므로 이 책은 미래의 비밀을 풀기 위한 암호표도 아니고, 역사와 무관한 상징 모음도 아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실재를 통해 1세기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모든 시대의 교회가 어린양께 충성하며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묵시·예언·서신이다.

저자는 자신을 ‘요한’이라고 밝히며(1:1, 4, 9; 22:8),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밧모섬에 있었다고 말한다(1:9). 전통적인 후기 저작설은 Irenaeus의 증언을 따라 Domitian 황제 말기인 주후 95년경을 유력하게 본다. 전기 저작설은 Nero 황제 말기 또는 예루살렘 멸망 전후인 60년대를 제안한다.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지만, 일곱 교회가 황제 숭배와 사회적 압력, 거짓 가르침, 물질적 번영과 영적 타협의 유혹 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2-3장).

2. 목적과 중심 메시지

계시록의 목적은 세상의 사건을 호기심으로 계산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G. K. Beale은 이 책의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당한 어린양의 역설적인 모범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데서 찾는다(Beale, The Book of Revelation, 304, 307). 교회는 겉으로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린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이기며(12:11),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2:10).

계시록은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참된 현실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제국과 짐승은 강해 보이지만 이미 심판 아래 있고, 죽임당한 어린양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여시는 참된 주권자이다(5:1-10).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땅에 임하는 심판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6:9-11; 8:3-5), 순교자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5:10; 20:4-6). William Hendriksen이 강조하듯,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성도도 마침내 승리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린다(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8-9).

3. 구약과 상징을 읽는 방법

계시록은 구약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보다 그 언어와 장면을 새롭게 엮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등의 수백 개 본문이 계시록의 환상 속에 반향한다. 따라서 짐승, 성전, 출애굽 재앙, 바벨론, 새 예루살렘을 당시의 뉴스나 현대 무기에 바로 대응시키기 전에 그 구약 배경을 살펴야 한다.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사용된 상징과 본문 자체가 해석해 주는 상징에서 출발하여 모호한 상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다(예: 1:20; 12:9; 17:9-18).

상징의 모든 세부를 각각 다른 역사적 대상에 대응시킬 필요도 없다. 먼저 환상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세부는 그 중심을 밝히는 범위에서 설명해야 한다. 일곱은 충만과 완전, 열둘과 그 배수는 언약 백성의 충만, 삼 년 반 또는 마흔두 달은 제한된 고난의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숫자가 나올 때마다 기계적으로 동일한 뜻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인, 나팔, 대접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연대기라기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보호를 반복하여 보여 주며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강도를 높여 가는 환상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Richard Bauckham은 계시록에 네 번 나오는 헬라어 표현 [엔 프뉴마티, ἐν πνεύματι], 곧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감동되어”가 책의 주요 환상들을 구분하는 구조적 표지라고 본다. 첫째는 밋모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를 보는 환상(1:10), 둘째는 하늘 보좌와 어린양을 보는 환상(4:2), 셋째는 광야에서 큰 음녀 바벨론을 보는 환상(17:3), 넷째는 크고 높은 산에서 어린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는 환상(21:10)이다. 특히 셋째와 넷째 환상은 문장 구조까지 서로 평행을 이루며 음녀와 신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의도적으로 대조한다(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Structure and Composition”). 본문 해설의 [엔 프뉴마티①-④]라는 번호는 헬라어 원문에 붙어 있는 번호가 아니라, Bauckham이 주목한 네 환상 구조를 독자가 한눈에 확인하도록 이 해설에서 붙인 편집 표시이다.

4. 이 해설의 주요 참고 주석과 구조

이 해설은 주로 G. K. Beale의 영어 원서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1999), Grant R. Osborne의 *Revelation* (BECNT, 2002), Robert H. Mounce의 *The Book of Revelation* (NICNT, rev. ed., 1997)을 참고한다. 이와 함께 David E. Aune의 WBC 주석과 본문에서 직접 언급되는 Richard Bauckham, William Hendriksen, George Eldon Ladd, Leon Morris를 비롯한 여러 대표적인 주석과 연구도 필요한 부분에서 참고했다.

전체의 세부 단락 구조는 G. K. Beale의 주석에 제시된 주요 해설 단위를 거의 그대로 따른다. 곧 서론(1:1-8), 높임받으신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1:9-3:22), 하늘 보좌와 어린양(4:1-5:14), 일곱 인(6:1-8:5), 일곱 나팔(8:6-11:19), 교회와 용의 싸움(12:1-15:4), 일곱 대접(15:5-16:21), 바벨론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승리(17:1-19:21),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20:1-15),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21:1-22:5), 결론(22:6-21)으로

진행한다. 이 세부 단락 구분 안에서 Bauckham의 [엔 프뉴마티①-④] 구조를 주요 환상 전환을 보여 주는 보조 표지로 함께 사용한다. 이 두 구조는 서로 경쟁하는 구분이 아니라, 전자는 본문의 세부 흐름을, 후자는 책의 큰 환상 전환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계시록 해석의 길잡이

5. 계시록의 주요 해석 방법

1) 역사주의

역사주의는 계시록의 환상을 사도 시대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교회사와 세계사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중세의 Joachim of Fiore와 종교개혁 이후의 여러 역사주의 해석자는 교황권이나 당시의 정치 세력을 계시록의 짐승과 연결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황권을 적그리스도적 권세와 연결한 주장과, 계시록의 개별 환상을 교회사 전체의 연속적 사건에 대응시킨 역사주의 해석은 구분하여 말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 접근은 계시록이 역사 전체에 말씀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해석자마다 교황, Napoleon Bonaparte, Benito Mussolini, Adolf Hitler 등 서로 다른 대상을 예언과 연결하여 일관된 검증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일곱 교회를 교회사의 일곱 시대로 나누는 일부 세대주의적 해석도 이 범주와 닿아 있다.

2) 과거주의

과거주의는 계시록을 먼저 요한과 1세기 교회의 역사적 상황에서 읽는다. 일부는 심판 환상을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연결하고, 일부는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 Cornelis van der Waal과 R. C. Sproul을 비롯한 부분 과거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각 환상을 예루살렘과 로마 가운데 어디에 연결할 것인지 의견이 갈리며, 두 배경이 계시록의 여러 환상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영되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첫 독자에게 실제로 의미가 있었던 말씀이라는 점을 잘 살리지만, 모든 예언과 재림·부활·최후 심판까지 과거에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완전 과거주의는 신약의 미래 소망과 양립하기 어렵다. 부분 과거주의는 1세기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몸의 부활, 최후 심판과 새 창조의 완성을 미래 사건으로 고백한다.

3) 미래주의

미래주의는 계시록의 중심 환상들을 세상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사건으로 본다. 초기 교부 Irenaeus 등에게서 전천년적 미래 기대가 나타났고, 중세에 약화되었다가 16세기 말 예수회 학자 Francisco Ribera의 해석을 통해 다시 주목받았다.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는 흔히 교회의 휴거, 칠 년 대환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 지상 천년왕국을 비교적 문자적이고 연속적인 시간표로 이해한다.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는 수정된 미래주의는 환난 전 비밀 휴거와 이스라엘·교회의 엄격한 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징과 반복 구조를 더 폭넓게 인정한다. 미래주의는 재림과 최종 심판의 실재를 분명히 하지만, 4장 이후를 거의 전적으로 먼 미래에 한정하면 일곱 교회와 첫 독자에게 주어진 위로와 경고가 약해질 수 있다.

4) 이상주의 또는 상징주의

이상주의 또는 상징주의는 짐승, 바벨론, 심판 환상을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 사이의 싸움으로 이해한다. William Hendriksen과 Anthony A. Hoekema 등의 해석은 계시록을 모든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고 환상들의 반복·재현을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1세기 역사와 마지막 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상징을 초시간적 원리로만 만들 위험이 있다.

5) 절충주의

절충주의는 앞의 네 접근이 가진 정당한 통찰을 함께 사용한다. G. K. Beale은 자신의 입장을 ‘수정된 이상주의의 구원사적 형태’로 설명하고, Grant R. Osborne은 미래적 완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주의와 이상주의의 통찰을 결합한다. George Eldon Ladd, George R. Beasley-Murray와 Robert H. Mounce도 서로 비중은 다르지만 1세기의 상황, 교회 시대의 반복, 마지막 성취를 함께 보려 한다.

Richard Bauckham도 한 가지 해석 체계로만 분류하기 어려운 절충적 입장에 가깝다. 그는 계시록을 미래 사건을 암호처럼 기록한 시간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권력과 우상숭배 아래 있던 1세기 교회에 주어진 예언으로 읽는다. 그러나 그 의미를 로마 시대에만 가두지 않고, 모든 시대의 교회가 우상적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어린양을 따라 충성된 증언을 하도록 부르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의 최종 심판,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의 미래적 완성을 인정한다. 또한 계시록의 상징은 구약의 예언과 의도적인 상호본문적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하며, 책 전체는 어린양의 희생적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강조한다(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The Climax of Prophecy*).

본 해설도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상징을 억지로 통일하지 않는다. 먼저 1세기 독자에게 주어진 의미를 확인하고, 구약 배경과 교회 시대에 반복되는 영적 현실을 살핀 뒤,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새 창조의 완성을 바라본다.

I. 프롤로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계시 (1:1-8)

1. 계시의 성격과 복 있는 독자 (1:1-3)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한다. 여기서 “계시 또는 묵시”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따라서 계시록은 소수의 사람만 풀 수 있는 비밀 암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구속 계획과 역사의 참모습을 교회에 밝혀 주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전해 주시는 계시라는 뜻을 함께 담는다(1:1; 롬 16:25; 고전 14:6).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1:1; 22:6). “알게 하다”에 쓰인 [세마이노]는 표적을 통하여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이 환상과 상징을 중요한 전달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 준다. 이 표현은 다니엘 2:28-30, 45의 배경을 이어받지만, 다니엘에게 먼 훗날의 일로 봉인되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종말 안에서 드러났음을 강조한다(행 2:16-17; 단 12:4; 계 22:10).

요한은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모든 것”이라고 증언한다(1:2). 이 세 표현은 서로 다른 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계시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한다. 계시록은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다(1:3). “예언”[프로페테이아]은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데만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현재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종말의 순서를 계산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1:3; 22:7; 눅 11:28).

“때”[카이로스]가 가깝다는 말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1:3). 이는 모든 예언이 요한 당대에 즉시 끝난다는 뜻도 아니고, 이천 년 뒤의 마지막 세대에게만 적용된다는 뜻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므로 결정적인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교회는 그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뜻이다(막 1:15). 그래서 계시록은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의 실제 형편에 주어진 묵회적 예언이면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이다.

2. 삼위 하나님의 인사와 그리스도의 구원 (1:4-8)

요한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1:4). 일곱 교회는 실제 역사 속의 교회들이지만, 일곱이라는 수의 완전성과 대표성 때문에 모든 시대의 보편 교회를 함께 가리킨다. 은혜와 평강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 보좌 앞의 “일곱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1:4-5). 이 인사는 성부·성령·성자의 사역을 함께 보여 준다.

성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14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사야의 선언을 떠올리게 한다(사 44:6; 48:12).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단지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뜻보다, 자신의 약속을 이루고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뜻을 강조한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일곱 천사라기보다 충만하고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문맥에 가장 자연스럽다(1:4; 4:5; 5:6; 속 4:2-7). 이는 한 성령을 일곱으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빠짐없이 역사하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완전한 활동을 상징한다. 따라서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사신’으로 낮추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시다(1:5). 이 세 호칭은 그분의 증언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왕권을 하나로 연결한다. 특히 “먼저 나신 이”는 단순히 먼저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다(시 89:27; 골 1:18).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역사의 참된 주권자이시다.

요한은 곧바로 그리스도께 송영을 올린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1:5-6; 출 19:6; 벰전 2:9). 교회는 장래에만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 속에서도 충성된 증언으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한다. 황제숭배의 압력을 받던 교회에 이 송영은 분명한 고백이었다. 영광과 능력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신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한다.

“불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선언은 다니엘 7:13과 스가랴 12:10을 결합한다(1:7). 이 구절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한 그리스도의 심판과 연결하는 과거주의 해석도 있지만, “땅의 모든 족속”과 계시록 전체의 결말을 고려하면 그 사건에만 한정하기 어렵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는 일들을 포함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재림과 최종 심판을 바라본다고 이해하는 것이 균형 있다. 그를 찢은 자들의 애통이 회개인지 심판 앞의 두려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누구도 그분의 왕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드신 전능자이시다(1:8). 계시록의 첫 단락은 두려운 사건의

목록보다 먼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난의 크기보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보아야 한다.

II. 교회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1:9-3:22)

1. 인자 같은 이의 환상 (1:9-20)

요한은 자신을 특별한 영적 영웅으로 내세우지 않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한다(1:9).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밧모섬에 있었으며, 교회와 함께
고난을 겪고 있었다. 여기서 환난·나라·인내는 분리되지 않는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 나라에 참여하지만, 그 나라는 충성된 증언과 인내를
통하여 드러난다(행 14:22; 빌 1:29). 예수님께서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까지 순종하셨고, 요한과 교회는 그 길을 따른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1:10). 원문의 [엔
프뉴마티①]는 계시록의 중요한 환상 전환 표현으로 4:2, 17:3,
21:10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요한은 뒤에서 울리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는다(1:10-11). 이 도시들은 실제 교통망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고 황제숭배와 사회·경제적 압력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형편은 시대마다 교회가 마주하는 충성과 타협의 문제를 대표한다.

요한이 돌아보았을 때 먼저 본 것은 일곱 금 촛대였고, 그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1:12-13; 단 7:13). 촛대는 일곱 교회를 뜻한다(1:20).
교회가 빛의 근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세워졌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촛대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그 가운데 거신다는 점이다. 그분은 교회의 수고와
고난과 타협을 모두 아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판단하고 바로잡으신다.

발까지 내려오는 옷과 가슴의 금띠,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서로 떨어진 외모의 정보가 아니다(1:13-15). 이 상징들은 그리스도의 존엄과 지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판단, 견고한 권세와 압도적인 위엄을 함께 드러낸다. 특히 흰 머리털은 다니엘 7:9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이 인자 같은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으로, 그분의 신적 영광을 나타낸다. 오른손의 일곱 별은 교회가 그분의 권세와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 주며,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 선 검은 그분의 말씀이 구원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뜻한다(1:16; 사 11:4; 49:2). 해처럼 빛나는 얼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요한은 그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1:17).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하데스]의 열쇠를 가졌노니”라는 선언은 이 환상의 중심이다(1:17-18). 성부께 사용된 처음과 마지막의 칭호가 성자께도 적용되어 그리스도의 신적 동등성을 드러낸다(1:8; 22:13; 사 44:6).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이제 죽음과 죽은 자들의 영역까지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순교의 위협 앞에 선 교회가 마지막으로 두려워해야 할 권력은 로마가 아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은 계시록을 단순히 과거·현재·미래의 세 부분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라는 뜻이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기록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1:19; 1:1; Beale, Revelation, 1:19).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1:20). [앙겔로스]가 각 교회의 사역자를 가리키는지,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를 가리키는지에는 견해가 갈린다. 어느 쪽이든

메시지가 실제 교회에 전달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고 그분 앞에 책임을 진다는 핵심은 달라지지 않는다.

2.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2:1-7)

2-3장의 일곱 메시지는 일반적인 사신보다 구약 선지자의 언약적 권고에 가깝다. 각 메시지는 1장의 환상에서 가져온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의 형편에 맞게 제시하고, “내가 안다”는 선언으로 칭찬과 책망을 시작하며, 회개하라는 명령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으로 나아간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반복은 한 교회에 주신 말씀을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도 성자와 성령의 긴밀한 사역을 보여 준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큰 항구도시이며 아데미 신전과 황제숭배의 중심지였다.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했고 거짓 교훈의 위험을 경고했다(행 19장; 20:28-30).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밝혀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했다(2:2-3). “행위들”[엘곤], 수고, 인내가 모두 칭찬을 받는다. 니콜라당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버가모의 발람 교훈과 함께 언급되는 점을 보면 우상숭배와 성적 타협을 정당화한 집단으로 보인다(2:6, 14-15).

그러나 바른 교리와 많은 수고가 사랑 없는 충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2:4).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지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인지, 또는 복음 증언의 열정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서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형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충성된 증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엡 1:15; 고전 13:3; Beale, Revelation, 2:4-5). 주님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계속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행하라고 명하신다(2:5). 회개하지 않으면 쏫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은 그들이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로서의 자리와 증언을 잃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2:7; 22:2). 죄로 잃어버린 에덴의 생명이 새 창조 안에서 회복된다는 약속이다. 교회의 승리는 힘으로 경쟁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다.

3.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 (2:8-11)

서머나는 황제숭배와 경제적 번영으로 이름난 도시였다. 그리스도인은 황제숭배를 거부함으로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고발을 당할 수 있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을 소개하신다(2:8; 1:17-18). 죽음의 위협을 받는 교회가 들어야 할 첫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정체이다.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세상 기준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요했다(2:9; 3:17과 대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모든 유대인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박해에 가담한 특정 대적자들을 가리키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장을 그들의 행동이 부정한다는 언약적 판단이다. 교회는 이 구절을 반유대주의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지만 고난을 피하리라는 약속도 없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게 하고 그들이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2:10). 이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받은 사건을 떠올리며, 고난이 실제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단 1:12-15). “장차”를 나타내는 [멜로]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옴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약 1:12).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2:11; 20:6, 14). 첫째 죽음이 성도의 몸을 해칠 수 있어도 부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며, 최종 심판인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교회의 안전은 고난을 전혀 만나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 속한 데 있다(1:18; 마 10:28).

4. 타협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 (2:12-17)

버가모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고 여러 이방 신전과 황제숭배가 강하게 자리 잡은 곳이었다. “사탄의 보좌”가 제우스 제단이나 황제숭배 신전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핵심은 버가모가 사탄의 세력이 문화와 권력을 통하여 강하게 활동하던 곳이라는 데 있다. 그리스도는 그런 도시에 사는[카토이케오] 교회의 형편을 아셨고, 사탄이 사는[카토이케오] 곳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들을 칭찬하셨다(2:13). “나의 충성된 증인”[말투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러나 외부 박해를 견딘 교회 안에 내부 타협이 들어왔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뜨렸듯이, 어떤 이들은 우상제물을 먹고 음행하도록 가르쳤다(2:14; 민 25:1-3; 31:16). 니콜라당의 교훈도 같은 방향의 타협을 가리킨다. 당시 무역조합과 도시 축제에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성적 부도덕이 뒤따를 수 있었고, 참여를 거부하면 경제적·사회적 배척을 받을 수 있었다(Beale, Revelation, 2:14-15). 그러나 생존을 위한 압력도 우상숭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주님은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납한 교회 전체에 “회개하라”고 명하신다(2:16). 교회는 공동체 안의 파괴적인 거짓과 타협에 대해 책임이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입의 검, 곧 진리와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1:16). 박해자만이 교회의 적이 아니라,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버리게 하는 타협도 적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 주어진다(2:17). 감추었던 만남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과 언약궤 안의 만남을 떠올리며, 우상 제물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메시아의 잔치를 가리킨다. 흰 돌은 무죄 판결의 표인지 잔치 입장권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새 이름과 함께 주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새로운 신분과 친밀한 관계를 상징한다(3:12; 사 62:2; 65:15). 세상의 축제에서 배제되더라도 그리스도께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2:18-29)

두아디라는 여러 무역조합이 발달한 상업도시였다. 조합의 모임과 축제가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할 때 그리스도인은 생계와 충성 사이에서 압력을 받았다.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던 도시에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다(2:18).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시다(2:23).

주님은 그들의 행위[엘곤]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셨다. 더욱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2:19). 이는 수고는 많았으나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와 대조된다. 그러나 두아디라에는 사랑과 섬김이 있었어도 진리를 거스르는 교훈을 분별하고 막는 일이 부족했다. 사랑과 진리는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

교회가 용납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끈 왕비의 이름을 빌린 상징적 호칭일 수 있다(왕상 16:31-34; 21:25-26). 그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피어 음행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2:20).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가 거부하자, 그가 죄를 짓던 침상을 질병과 심판의 침상으로 바꾸겠다고 경고하신다(2:21-23). “용납하다”[압히에미]는 무조건적인 관용이 사랑이 아님을 보여 준다. 개인적 잘못은 용서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채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가르침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눅 17:3-4; 마 18:15-17).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남은 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가진 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신다(2:24-25; 행 15:28-29). 이기며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2:26-27). 시편 2편에서 메시아께 주어진 철장 권세에 성도도 참여한다(시 2:8-9; 단 7:18, 22; 딤후 2:12). “새벽 별”을 주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새벽 별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왕권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뜻이다(2:28; 22:16; 민 24:17). 교회의 승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여 마침내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6. 살아 있다는 이름만 가진 사데 교회 (3:1-6)

사데는 부유하고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지만 방심 때문에 여러 차례 정복된 역사가 있는 도시였다. 이 교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다(3:1). 죽은 교회를 살리시는 성령의 충만한 사역과 교회를 손에 붙드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 강조된다.

사데 교회는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3:1-2). 외적인 명성과 활동이 참된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깨어” 죽어

가는 남은 것을 굳게 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테레오] 회개해야 한다(3:2-3). 깨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기서 ‘오심’은 최종 재림을 배제하지 않지만, 먼저 불순종한 교회를 역사 속에서 징계하시는 방문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사데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다(3:4). 그들은 우상숭배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으로 남았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며,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다(3:4-5; 마 10:32-33; 눅 10:20). 이는 참된 성도를 구원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위협보다, 끝까지 이기는 자의 구원을 확증하는 약속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회의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이름이다.

7.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3:7-13)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이다(3:7). 이사야 22:22에서 왕궁의 열쇠를 맡은 관리가 열고 닫는 권한을 가졌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참된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주권적으로 여닫으신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그분께 있다(1:18). 어떤 인간 집단도 그리스도께서 여신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없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테레오]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3:8). 적은 수나 낮은 사회적 지위는 실패의 표시가 아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 이것이 선교의 기회를 뜻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길을 뜻할 수도 있으나, 문맥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교회의 출입과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데 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대적자들은 마침내 교회 앞에 엎드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3:9; 사 43:4; 49:23). 이는 교회가 사람의 숭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척받던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다는 뜻이다.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주님도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에서 그들을 지키신다(3:10). 이를 시험 자체의 면제로 볼지,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보존하시는 보호로 볼지에는 견해가 갈린다. 요한복음 17:15과 계시록 전체의 고난 신학을 고려하면,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보장보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에 무게를 둘 수 있다(Beale, Revelation, 3:10; Osborne, Revelation, 3:10).

주님은 속히 오시므로 그들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3:11).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다시 나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는다(3:12; 사 56:5; 겔 48:35). 지진과 배척으로 불안정했던 사람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영속성과 시민권의 약속이다.

8.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3:14-22)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검은 양모 산업, 의료로 부유한 도시였으며 큰 지진 뒤에도 외부 원조 없이 재건할 만큼 자부심이 강했다. 그러나 물 사정은 좋지 않았고 수로를 따라 들어온 물은 미지근하고 불쾌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알케]으로 말씀하신다(3:14). [알케]는 예수님이 최초로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과 주권적 시작이라는 뜻이다(요 1:3; 골 1:15-18).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다(계 1:5; 21:5).

라오디게아는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들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주님이 토해 내고 싶어 하시는 상태였다(3:15-16). 뜨거운 물과 찬물은 각각 치료하고 생기를 주지만,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다. 따라서 “차갑다”를 불신앙, “뜨겁다”를 열정으로만 나누어 차라리 불신자가 되라는 뜻으로 읽기보다, 그들이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에 머물렀다는 책망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3:17). 궁핍하지만 실제로 부요했던 서머나와 정반대이다(2:9).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그에게서 사서 참으로 부요해지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발라 영적 실상을 보라고 권하신다(3:18). 금과 옷과 안약은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던 산업을 뒤집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정결과 의와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이 책망은 버림받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이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3:19; 잠 3:12; 히 12:6). 그리스도는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함께 먹겠다고 약속하신다(3:20).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불신자 개인에게 보내는 전도 초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실상 교회 밖에 세워 둔 라오디게아 공동체에 교제의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물론 그 부름에는 각 사람이 듣고 응답해야 할 책임도 포함된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3:21; 눅 22:28-30). 세상에서는 적은 능력과 궁핍과 배척을 겪을 수 있지만, 충성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다. 일곱 메시지 전체에서 승리는 고난과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의 증언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III.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양 (4:1-5:14)

1. 하늘 보좌와 창조주의 통치 (4:1-11)

일곱 교회의 불안정한 현실 뒤에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본다(4:1). 처음 들었던 나팔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데이]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고 한다(1:1; 4:1). 요한은 곧 “성령 안에”[엔 프뉴마티②] 있게 되고, 하늘에 놓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본다(4:2). 이 환상의 초점은 종말 사건의 세부 순서를 미리 보는 데 있지 않고, 땅의 혼란 위에서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 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묘사하지 않고 벽옥과 홍보석의 빛, 녹보석 같은 무지개로 그 영광을 표현한다(4:3; 겔 1:26-28). 보석은 시내산과 제사장의 흉패, 에덴과 새 예루살렘을 함께 떠올리며,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노아 언약과 창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킨다(창 9:12-17; 출 24:10; 28:17-20; 계 21:11, 18-20). 심판의 보좌를 언약의 무지개가 둘러싸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변덕스러운 파괴가 아니라 거룩하고 신실한 통치임을 보여 준다.

보좌 둘레의 스물네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다(4:4). 이들이 천상적 존재인지 영화롭게 된 성도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스물네 제사장 반열과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를 함께 떠올리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예배하는 천상적 회의로 이해할 수 있다(대상 24장; 계 21:12-14; Beale, Revelation, 4:4). 그들이 받은 흰옷과 면류관과 보좌는 일곱 교회에 약속된 상급과도 연결된다(2:10; 3:5, 21).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리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와 뒤이어 올 심판을 나타낸다(4:5; 출 19:16; 계 8:5; 11:19; 16:18). 보좌 앞의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스가랴 4장의 일곱 등불과 성령으로 성전을 회복하시는 약속을 배경으로 한다(스 4:2, 6, 10). 성령께서 교회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에스겔의 수정 같은 궁창과 성전의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4:6; 겔 1:22; 왕상 7:23-26).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은 사자·송아지·사람·독수리 같은 모습을 하고 눈과 날개가 가득하다(4:6-8; 겔 1:5-18; 사 6:2-3). 각 피조물의 대표인지 구체적인 천상 존재인지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살피며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여 예배하고 심판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임은 분명하다(Osborne, Revelation, 4:6-8).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찬양한다(4:8; 사 6:3). 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한다. 만물이 그분의 뜻으로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이다(4:9-11). “우리 주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요구하던 황제도 창조주 앞에서는 한 피조물일 뿐이다. 교회가 현실을 바로 보려면 먼저 하늘의 예배를 보아야 한다. 역사는 로마나 어떤 제국의 보좌가 아니라 창조주의 보좌에서 다스려진다.

2. 두루마리와 이기신 어린양 (5:1-7)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기록되고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다(5:1; 겔 2:9-10; 단 12:4).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집행하는 언약적 문서로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열어 역사를 완성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디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자 요한은 크게 운다(5:2-4). 인간의 지혜와 권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장로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여실 것이라고 말한다(5:5; 창 49:9-10; 사 11:1, 10). 그러나 요한이 돌아보아 발견한 승리자는 사나운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이다(5:6). 어린양은 죽임당했으나 서 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뜻이다. 유월절 어린양과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결합되며,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악을 이긴 결정적 승리임을 보여 준다(요 1:29; Beale, Revelation, 5:5-6).

어린양의 일곱 뿔은 완전한 권능을,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한다(5:6; 숙 4:10). 부활하여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행 2:33). 어린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는 모습은 인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통치권을 받는 다니엘 7:13-14를 반영한다(5:7). 6장부터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는 과정이다.

3. 어린양께 드리는 새 노래 (5:8-14)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받자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그 앞에 엎드린다(5:8). 그들은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시 141:2; 계 6:9-10; 8:3-4). 땅에서 박해받는 교회의 기도가 하늘 예배 가운데 보존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언제까지입니까?”라는 탄원도 믿음 없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새 노래로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를 노래한다. 어린양이 죽임을 당하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사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5:9-10; 출 19:6; 계 1:6). 구원받은 공동체는 한 민족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는 다양한 백성을 한 나라와 제사장 공동체로 만들며, 그들은 땅 위에서 또는 땅을 다스리게 된다. 사본에 따라 동사 시제에 차이가 있지만, 성도가 이미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면서 장차 완전한 통치를 기다린다는 계시록 전체의 흐름은 분명하다.

“새 노래”는 새 창조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사 42:10; 계 14:3). 천천만만의 천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외치고, 마침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께 영원한 찬송을 드린다(5:11-14; 단 7:10). 성부께 드린 창조주의 찬양이 성자께도 드러짐으로 어린양의 신적 존귀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 찬양은 모든 고난이 끝난 뒤에만 부를 노래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부른다. 창조의 주권이 심판과 구속의 주권의 토대이며, 어린양의 구속은 타락한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Beale, Revelation, 4:11-5:14). 성도는

영광의 확실성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롬 8:18), 죽임당한 어린양을 따르는 충성된 증언으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한다.

IV. 일곱 인: 심판 가운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 (6:1-8:5)

인·나팔·대접의 세 심판 시리즈를 모두 엄격한 시간 순서로 배열하기는 어렵다. 나팔과 대접은 심판의 대상과 순서가 서로 닮았고, 각 시리즈의 마지막에는 우리와 번개와 지진 및 최종 심판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나타난다(8:5; 11:19; 16:18-21). 여섯째 인도 이미 우주적 종말과 “진노의 큰 날”을 보여 준다(6:12-17). 따라서 세 시리즈는 교회 시대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반복하여 보여 주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Beale, Revelation, 6:1-8:5). 그렇다고 역사의 실제 재난을 단지 비현실적인 상징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환상은 전쟁·기근·죽음·박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제 심판을 구약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1. 네 기수와 제한된 심판 (6:1-8)

죽임당한 어린양이 첫 네 인을 떼실 때 네 생물이 차례로 “오라”고 외치며 말과 기수들이 등장한다(6:1-8). 이 장면은 스가랴 1장과 6장에서 온 세상을 순찰하며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말들을 배경으로 한다. 기수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면류관과 칼과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신적 수동태의 반복은 재난과 악한 세력까지 하나님의 한계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흰 말의 기수는 활과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간다(6:2). 이를 19장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정복 전쟁이나 적그리스도적 세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어지는 세 기수가 모두 재앙을 가져오고 넷째 기수가 앞선 재앙을 종합한다는 점에서는, 첫째 기수도 정복과 제국주의적 폭력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다만

흰색과 “이기다”라는 표현 때문에 해석은 열어 둘 필요가 있다(Osborne, Revelation, 6:1-2; Mounce, Revelation, 6:1-2).

붉은 말의 기수는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는다(6:3-4). 이는 전쟁과 내란뿐 아니라 충성된 증인을 죽이는 폭력까지 포함할 수 있다. 검은 말의 기수는 저울을 들고 있으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 또는 보리 석 되라는 음성이 들린다(6:5-6). 하루 품삯으로 겨우 하루 양식을 구할 만큼 극심한 기근과 경제적 불균형이 닥친다는 뜻이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은 심판이 아직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 주거나, 가난한 사람의 기본 양식은 부족한데 일부 사치품은 남는 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다.

청황색 또는 창백한 말의 기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하데스]가 뒤따른다(6:7-8). 그들은 칼과 흉년과 사망과 들짐승으로 땅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를 받는다. 이는 우상숭배한 백성에게 경고된 언약의 심판을 반영한다(레 26:18-28; 겔 14:21). 사분의 일이라는 제한은 심판이 엄중하지만 아직 최종적이지 않으며,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어린양이 인을 떼신다는 사실은 죽음이 그분과 대등한 세력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확증한다(1:18).

2. 순교자들의 탄원과 하나님의 때 (6:9-11)

다섯째 인이 열릴 때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지킨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프쉬케]을 본다(6:9). 제물의 피가 제단 아래 쏟아졌듯이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과 증언으로 묘사된다(레 4:7). 그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외친다(6:10; 시 79:10; 속 1:12).

이 기도는 개인적 원한의 복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이름의 신원을 구하는 탄원이다. 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없으며, 순교자의 피를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은 박해받는 교회에 위로가 된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지고,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쉬라는 응답을 받는다(6:11). 하나님께서 순교를 즐기시거나 임의의 숫자를 채우신다는 뜻이 아니라, 악이 허용되는 기간과 구속 역사의 완성이 그분의 정하신 때 안에 있다는 묵시적 표현이다.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3. 어린양의 진노와 마지막 날 (6:12-17)

여섯째 인이 열리자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어지며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진다(6:12-14). 이 장면은 특정 지진이나 천문 현상 하나를 암호처럼 예고하기보다, 구약이 “여호와와 그의 날”과 제국의 몰락을 묘사할 때 사용한 우주적 언어를 결합하여 최종 심판의 규모를 보여 준다(사 34:4; 64:1-2; 욥 2:31; 막 13:24-25).

왕과 권력자와 부자와 장군, 종과 자유인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굴과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을 덮어 달라고 한다(6:15-16; 사 2:10-21; 호 10:8). 세상에서 지위와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던 사람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 앞에서는 함께 무너진다. 온유한 희생 제물인 어린양의 “진노”는 낮설게 들리지만,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의 백성을 죽인 악에 대한 거룩한 정의이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이 다음 장을 준비한다(6:17; 욥 2:11). 답은 자기 힘이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양의 피로 씻은 자이다.

4. 인 맞은 십사만 사천 (7:1-8)

일곱째 인이 열리기 전,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7:1). 이는 시간 순서상 긴 중단이라기보다 심판 가운데 누가 설 수 있는지 설명하는 삽입 환상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명한다(7:2-3; 겔 9:4-6). 인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나타내며, 신약의 성령의 인 치심과도 연결된다(고후 1:22; 엡 1:13; 4:30; 계 14:1; 22:4).

이 보호는 성도가 전쟁이나 박해나 육체적 죽음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바로 다음 환상에서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며, 짐승은 성도와 싸워 육체적으로 이길 수 있다(7:14; 13:7).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의 영적 속임이 그들의 믿음과 최종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마 10:28; 벰전 1:5).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깊은 보호는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존되는 것이다.

인을 받은 수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씩, 모두 십사만 사천 명이다(7:4-8). 지파 목록은 구약의 어느 명단과도 정확히 같지 않다. 유다가 맨 앞에 오고, 단은 빠지며, 레위와 요셉이 포함되고 에브라임 대신 요셉의 이름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를 혈통적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명단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열둘 곱하기 열둘 곱하기 천이라는 수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완전하게 계수되었음을 상징할 수 있다(Beale, Revelation, 7:4-8). 민수기의 인구조사처럼 전쟁에 나갈 군대를 계수하는 배경도 있으므로, 십사만 사천은 어린양을 따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된다(민 1:2-3; 31:4; 계 14:1-5;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5. 모든 민족에서 나온 큰 무리 (7:9-17)

요한은 십사만 사천의 수를 “들은” 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본다”(7:9).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 있다.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를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계시록에서 들은 것과 본 것이 같은 실체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를 고려하면, 지상에서 계수된 전투하는 교회와 하늘에서 승리한 보편 교회를 두 관점으로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5:5-6; Beale, Revelation, 7:4-9).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계수되며, 요한의 눈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셀 수 없는 다민족의 무리이다(창 13:16; 15:5; 22:17-18).

큰 무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치고, 모든 천사와 장로와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한다(7:10-12). 한 장로는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설명한다(7:13-14). “큰 환난”을 마지막 직전의 특별한 기간으로 한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본문은 일곱 교회가 이미 겪는 환난과 모든 시대 교회가 통과하는 고난을 포함하여 마지막의 격렬한 환난까지 바라볼 수 있다. 피에 씻어 옷이 희어진다는 역설은 그들의 정결과 승리가 자기 순교의 공로가 아니라 대속하신 어린양의 피를 믿고 붙든 데서 온다는 뜻이다(Beale, Revelation, 7:14).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7:15). 다시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으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으신다(7:16-17). 이사야 49:10과 25:8의 포로 귀환 약속이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소망으로 성취된다. 아직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교회는 하늘의 보장된 결말을 미리 본다.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린양의 피로 씻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다.

6. 일곱째 인과 성도들의 기도 (8:1-5)

어린양이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진다(8:1). 이 침묵은 정확한 시간을 재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모든 소리가 멎는 엄숙한 기다림이다(합 2:20; 속 2:13; Beale, Revelation, 8:1).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하늘의 침묵 또는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과 연결할 수도 있다(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이어 하나님 앞에 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다(8:2).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을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린다. 향의 연기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뒤, 천사는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는다(8:3-5; 출 30:1-10; 시 141:2; 겔 10:2).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6:9-10의 “언제까지입니까?”라는 탄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되는 장면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억지로 행동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운 계획 속에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뜻이다. 꺾박받는 교회의 기도는 무력한 말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이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된다.

V. 일곱 나팔: 경고의 심판과 교회의 증언 (8:6-11:19)

1. 처음 네 나팔과 피조세계의 심판 (8:6-13)

일곱 나팔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나팔과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 임재를 알린다(출 19:16-19; 수 6:8-20). 처음 네 나팔은 땅·바다·강과 샘·하늘의 광명체를 차례로 친다. 이는 처음 네 인과 일곱 대접의 배열과도 닮았으며, 출애굽 재앙을 새롭게 사용하여 우상숭배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준다.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과 나무와 풀의 삼분의 일이 불탄다(8:7; 출 9:22-25; 욥 2:30). 둘째 나팔에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생물과 배의 삼분의 일이 파괴된다(8:8-9). 이를 특정 화산 폭발로 한정하기보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른 배경과 출애굽의 피 재앙을 함께 보아야 한다(렘 51:25; 출 7:17-21). 제국과 상업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는 모습은 18장에서 더 분명해진다.

셋째 나팔에는 “쭈”이라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 물을 쓰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다(8:10-11). 쭈은 구약에서 우상숭배와 거짓 가르침에 따르는 쓰디쓴 심판을 상징한다(신 29:18; 렘 9:15; 23:15). 이 별을 운석이나 바벨론을 대표하는 타락한 존재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의 물이 된다는 데 있다. 넷째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져 빛이 줄어든다(8:12; 출 10:21-23; 사 13:10; 욥 2:10). 창조의 빛을 거부한 세상은 어둠의 결과를 맞본다.

각 재앙이 “삼분의 일”에 제한된 것은 아직 최종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공중의 독수리는 남은 세 나팔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세 번 화가 있다고 외친다(8:13; 호 8:1).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단순히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보다 땅의 질서와 우상을 자기 집으로 삼은 완고한 세상을 가리키는 계시록의 반복 표현이다(13:8; 17:8).

2. 다섯째 나팔: 무저갱의 메뚜기 (9:1-12)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아뷔소스]의 열쇠를 받는다(9:1). 이 별을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와, 무저갱을 열도록 위임받은 선한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눅 10:18; 계 20:1).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존재의 정확한 신원보다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악한 영들의 감옥인 무저갱조차 그리스도의 권세 밖에 있지 않다(1:18).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전갈 같은 권세를 받는다(9:2-3). 이들은 자연의 풀과 나무를 먹는 보통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다섯 달 동안 괴롭힌다(9:4-5; 7:3). 죽이지는 못하고 고통의 기간도 제한된다. 사람들은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한다(9:6). 악이 약속하는 자유와 생명이 결국 그 추종자 자신을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심판의 역설이다.

메뚜기의 전쟁 말 같은 모습, 면류관 같은 것,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 사자의 이, 철 흉갑, 병거 소리와 전갈 꼬리는 하나하나 현대의 헬리콥터나 무기로 바꾸어 읽을 암호가 아니다(9:7-10). 요엘 1-2장의 메뚜기 군대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한 침략군의 특징을 결합하여 악한 군대의 위협과 기괴함을 극대화한다. 그들의 왕은 무저갱의 천사이며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루온, 곧 “파괴자”라 불린다(9:11). 사탄의 나라는 결국 파괴밖에 낳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영적 생명은 그 세력이 빼앗지 못한다.

3.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의 네 천사와 회개하지 않는 세상 (9:13-21)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하나님 앞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와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한다(9:13-14). 제단에서 명령이 나온다는 점은 이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연결됨을 암시한다(8:3-5). 결박되었다가 파괴를 위해 풀려나는 점에서 이들은 악한 천사들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정해진 “그 년 월 일 시”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못한다(9:15).

유브라데는 로마 세계의 동쪽 경계이자 침략군이 넘어오는 전통적인 방향이었다. 이만만의 마병대와 불·연기·유황, 사자 같은 머리와 뱀 같은 꼬리는 실제 파르티아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배경으로 삼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역사적 군대에 한정되지 않는 악마적 전쟁과 죽음을 묘사한다(9:16-19; 창 19:24). 그들의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파괴는 폭력뿐 아니라 거짓말과 기만이 사람을 죽이는 힘임을 생각하게 한다. 사람 삼분의 일이 죽지만 심판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더 두려운 결말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동·목석의 우상과 귀신을 계속 섬기며, 살인과 복술[파르마케이아]과 음행과 도둑질을 버리지 않는다(9:20-21; 시 115:4-8).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처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 출애굽 재앙 앞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처럼, 심판 그 자체가 자동으로 회개를 낳지는

않는다. 이 완고함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4. 열린 작은 두루마리와 요한의 사명 (10:1-11)

요한은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10:1). 그 모습이 1장의 그리스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계시록이 일관되게 그를 천사라고 부르고 그가 창조주를 두고 맹세하므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를 반영하여 파송된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하다(10:5-6; Osborne, Revelation, 10:1). 그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두어 메시지가 온 세상을 향함을 나타낸다(10:2).

천사가 사자처럼 외치자 일곱 우레가 말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10:3-4). 계시록이 많은 것을 드러내는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으신 비밀도 남아 있다(신 29:29; 단 12:8-9). 성경이 침묵하는 종말의 세부를 추측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 천사는 영원하신 창조주를 두고 맹세하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나팔 때 선지자들에게 복음으로 알리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10:5-7; 단 12:6-7; 암 3:7). 이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기다리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10:8-10; 겔 2:8-3:3; 렘 15:16).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승리의 약속이기에 달지만, 그 안에 심판의 메시지와 선지자가 감당할 고난이 담겨 있기에 쓰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받아 자기 안에 소화해야 하며, 듣기 좋은 부분만 골라 전할 수 없다.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받는다(10:11). 계시의 전달은 하나님에게서 어린양을 거쳐 천사와 요한과 교회로 이어지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을 함께 증언한다.

5. 측량된 성전과 두 증인 (11:1-14)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11:1; 겔 40:3-5; 속 2:1-5). 이 성전을 마지막 때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견해와 주후 70년 이전의 성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성전과 쫓대로 묘사하고, 측량의 대상에 “예배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1:20; 3:12; Beale, Revelation, 11:1-2). 측량은 크기를 조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고 영적으로 보호하는 행위이다.

바깥뜰과 거룩한 성은 이방인에게 주어져 마흔두 달 동안 짓밟힌다(11:2). 이는 교회의 내적·영적 생명은 보호받지만 외적인 몸과 역사적 삶은 박해에 노출된다는 역설을 보여 줄 수 있다. 마흔두 달, 천이백육십 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모두 삼 년 반에 해당하며, 다니엘서에서 악이 한정된 기간 동안 성도를 괴롭히는 때를 배경으로 한다(단 7:25; 12:7; 계 12:6, 14; 13:5). 이를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 시대 전체로 볼지 마지막의 집중된 환난으로 볼지에는 견해가 갈리지만,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께 정해지고 단축되어 있다는 핵심은 같다(마 24:22).

하나님의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며, “두 감람나무와 두 쫓대”라 불린다(11:3-4; 속 4:11-14). 두 증인을 마지막 때 나타날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쫓대가 이미 교회를 뜻하고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는 율법의 기준이 배경에 있으므로, 왕적·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증언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본문 전체와 잘 맞는다(신 19:15; 계 1:20; Beale, Revelation, 11:3-13). 미래의 특별한 두 증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이 본문을 교회의 현재적 사명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Osborne, Revelation, 11:3-13).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 하늘을 닫는 권세, 물을 피로 바꾸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는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반영한다(11:5-6; 왕상 17:1; 왕하 1:10-12; 출 7:17-21). 이는 교회가 문자적으로 불을 내리는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드러내고 심판을 선언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다(렘 5:14). 교회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충성된 예언과 증언이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아뷔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인다(11:7). 짐승은 그들의 사명을 끝내기 전에는 제거할 수 없다. 시체는 상징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큰 성, 곧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의 거리에 놓인다(11:8). 예루살렘·로마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전체의 특징이 결합된다. 세상은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만 삼 일 반 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은 일어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11:9-12; 겔 37:5-10).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승리함을 상징한다.

큰 지진으로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칠천 명이 죽으며,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11:13). 이를 참된 회개로 보는 견해와 심판 앞의 강제적 인정으로 보는 견해가 갈린다. 16:9에서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반대 표현을 고려하면 증언을 통한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지만, 두려움과 영광 돌림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충성된 증언이 패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증언을 신원하신다는 사실이다.

6. 일곱째 나팔과 완성된 나라 (11:15-19)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라는 큰 음성이 들린다(11:15). 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처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과 승천으로 왕이 되셨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반대 세력이 제거되고 그 통치가 공개적으로 완성된다. 과거형 표현은 미래의 성취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선포한다.

스물네 장로는 엎드려 하나님이 큰 권능을 잡고 왕 노릇 하셨음을 감사한다(11:16-17).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선지자와 성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할 때가 왔다(11:18; 시 2:1-6). 인간의 탐욕과 폭력이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난다(11:19). 잃어버린 지상의 언약궤를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와 약속의 신실함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뜻이다.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증인들을 죽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소유하고 보호하셨으며, 그들의 기도와 증언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짐승이 성도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믿음과 최종 승리를 빼앗을 수 없다(벧전 1:5; 계 12:11).

VI. 용과 두 짐승에 맞선 어린양의 백성 (12:1-15:4)

1. 여자와 아이와 붉은 용 (12:1-17)

12장은 앞선 심판 환상 뒤에서 움직이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 준다. 하늘에 나타난 큰 표적은 해를 입고 달을 발아래 두며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이다(12:1). 여자를 마리아 개인으로만 보거나 민족적 이스라엘과 교회 가운데 하나로만 제한하기보다, 메시아를 낳고 그 후에도 박해받는 언약 백성 전체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와 달과 열두 별은 요셉의 꿈을, 해산의 고통은 시온이 구원을 낳는 선지서의 약속을 떠올린다(창 37:9-10; 사 26:17-18; 66:7-9; 미 4:9-10; 5:2-5).

또 다른 표적은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 왕관을 가진 큰 붉은 용이다(12:3). 그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찢는 자”이다(12:9; 창 3:1; 계 20:2).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다니엘 7장의 제국적 짐승들을 반영하고, 왕관은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를 모방하여 정치 권력 뒤에서 왕 노릇 하려 함을 보여 준다. 꼬리로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 던진 장면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다니엘 8장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를 상징할 수도 있다. 본문만으로 사탄의 최초 타락 과정과 천사의 정확한 비율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용은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며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다(12:4-5; 시 2:8-9). 아이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환상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부활·승천까지를 짧게 압축하여, 사탄의 모든 공격이 실패하고 메시아가 보좌에 오르셨음을 보여 준다. 여기의 들려 올라감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이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천이백육십 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토포스, τόπος]에서 양육받는다(12:6).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면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신 장소이다.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은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다(12:7-9; 단 10:13, 21; 12:1). 이를 사탄의 최초 타락이나 마지막 때의 한 전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어지는 해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천으로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무너졌음을 가리킨다(12:10; 요 12:31-32; 골 2:14-15;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h. 3; Beale, *Revelation*, 12:7-12). 미가엘의 승리는 땅에서 어린양이 이루신 승리의 천상적 표현이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지만 하나님 법정에서 성도를 정죄할 근거를 잃었다(롬 8:33-34).

성도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용을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12:11). 승리의 근거는 자신의 의나 용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이다. 그 승리는 복음을 붙들고 증언하며, 필요하면 죽음까지 감수하는 충성으로 나타난다. 사탄의 주된 무기는 속임과 고발이다. 그는 성도를 낙심시켜 믿음을 포기하게 하거나 자기 행위의 의를 의지하게 한다. 교회는 어느 길도 따르지 않고 어린양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서며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짧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하기 때문이다(12:12). 용은 여자를 박해하지만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는다(12:13-14; 출 19:4; 신 32:11-12). 뱀이 홍수 같은 물을 토해 여자를 휩쓸려 하지만 땅이 물을 삼킨다(12:15-16; 출 15:12; 사 43:2). 출애굽과 광야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박해와 거짓 교훈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심을 보여 준다.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러 간다(12:17). 여자와 남은 자손을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로 엄격히 분리하기보다, 하늘에 신분을 둔 보편 교회와 땅에서 실제로 싸우는 개별 성도들의 두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용이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패한 용이 짧은 시간 동안 어린양의 백성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2.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1-10)

용이 바닷가에 서자 바다에서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이 올라온다(12:18-13:1). 표범·곰·사자의 특징을 합친 모습은 다니엘 7장의 네 제국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짐승은 한 개인을 가리키는 적그리스도적 통치자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배후의 더 넓은 실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제국과 국가 권력, 반복되는 세계 제도이다. 요한의 첫 독자에게 그 직접적인 모습은 로마 제국과 황제 권력이었으며, 마지막에는 더욱 집중된 적그리스도적 권세로 나타날 수 있다(Beale, Revelation, 13:1-10; Osborne, Revelation, 13:1-10).

용은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13:2). 짐승의 한 머리는 죽임당한 듯했으나 치명상이 낮고 온 땅이 놀라 그를 따른다(13:3). 이 장면은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당시의 소문을 반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죽임당했다가 살아난 어린양을 악이 모방하는 모습이다(5:6; 13:14). 사람들은 용과 짐승에게 절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말한다(13:4). 이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라는 하나님 찬양을 짐승에게 돌리는 신성모독이다(출 15:11).

짐승은 큰 말과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과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는다”(13:5-7; 단 7:8, 21, 25).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하늘에 장막 친

자들을 모독하고 성도와 싸워 외적으로 이긴다. 그러나 그 권세는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며 기간도 제한된다. “하늘에 장막 친 자들”은 땅에서도 박해받지만 하나님 임재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짐승은 몸을 죽일 수 있어도 그들의 하늘 시민권과 최종 구원을 파괴하지 못한다.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한다(13:8). “창세로부터”가 “죽임당한 어린양”을 수식하는지 “기록된 이름”을 수식하는지는 문법적으로 논의되지만, 17:8과의 평행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을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뜻에 무게를 준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행 2:23; 벰전 1:19-20). 이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의 인내를 없애지 않고 가능하게 한다. 잡히고 칼에 죽을 상황에서도 성도는 보복의 칼을 들기보다 믿음으로 견딘다(13:9-10; 램 15:2; 마 26:52).

3.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 (13:11-18)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한다(13:11). 겉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았으나 말과 목적은 사탄에게서 나온다. 뒤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며,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사하여 사람들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13:12; 16:13; 19:20).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영화롭게 하여, 용·짐승·거짓 선지자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악하게 모방한다(Mounce, Revelation, 13:11-12).

둘째 짐승은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큰 표적을 행하고,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13:13-14). 엘리야와 두 증인의 표적을 모방하지만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이다. 우상에게 생기[프뉴마]를 주어 말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한다(13:15; 단 3장). 기적의 존재만으로 그 사역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하는지, 어떤 열매와 예배를 낳는지를 분별해야 한다(신 13:1-5; 마 7:15-20; 24:24; 요일 4:1-3).

둘째 짐승은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13:16-17). 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받은 인을 모방한다(7:3; 14:1). 이마와 손은 생각과 행동, 충성과 소속을 나타내며 신명기 6:8의 배정도 갖는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반드시 눈에 보이는 특정 장치나 기술 하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짐승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요구에 따라 행동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상적 체제에 충성하는 것이 표의 본질이다. 실제 역사에서는 그 충성이 제도적 표식이나 경제적 통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Beale, Revelation, 13:16-17).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 “육백육십육”이다(13:18). 게마트리아(각 문자에 수 값을 부여하여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는 고대의 표기 방식)로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적은 נרן קיסר 의 글자값을 합하면 666이 되므로, 요한 당시의 대표적인 박해자 네로를 가리킨다는 해석은 강한 역사적 개연성을 가진다. 일부 고대 사본의 616도 라틴식 “네로 카이사르” 철자에서 설명될 수 있어 이 연결을 뒷받침한다(Mounce, Revelation, 13:18). 그러나 숫자가 네로 한 사람에게서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일곱에 미치지 못하는 여섯의 삼중 반복은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적·사탄적 권세를 함께 상징할 수 있다(Beale, Revelation, 13:18). 지혜는 시대마다 네로와 같은 짐승의 모습을 분별하되, 임의의 지도자 이름을 숫자에 억지로 맞추지 않는 데 있다.

4. 시온산의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 (14:1-5)

두 짐승과 그 표의 위협 뒤에 요한은 시온산에 선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을 본다(14:1).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3:12; 7:3; 22:4). 시온산은 메시아가 왕으로 세워진 장소이며, 여기서는 하늘 예루살렘과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나타낸다(시 2:6; 히 12:22). 7장에서 지상 전투 공동체로 계수되던 사람들이 이제 어린양과 함께 선 승리 공동체로 나타난다.

하늘의 큰 물소리와 우렛소리와 거문고 소리 가운데 새 노래가 울리며, 땅에서 속량받은 십사만 사천만 그 노래를 배운다(14:2-3). 이는 비밀 지식이 아니라 어린양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자만 부를 수 있는 구속의 노래이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처녀”라고 불린다(14:4). 남성만의 독신 집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묘사한 배경에 따라 짐승과 바벨론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은 언약적 순결을 나타낸다(고후 11:2).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며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되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14:4-5; 슥 3:13; 벧전 1:19; 2:22). 그들이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짐승의 거짓을 거부하며 충성된 증언을 지킨다는 뜻이다. 어린양을 따르는 길은 영광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포함하지만, 바로 그 길이 참된 승리이다.

5. 세 천사의 선포와 성도의 인내 (14:6-13)

첫째 천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친다.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14:6-7). 이 복음을 심판 소식으로만 보거나 회개의 초청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창조주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며, 짐승을 계속 경배하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이중적 소식이다. 복음은 어린양의 구원과 하나님의 왕권을 알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우상을 버리도록 촉구한다(Beale, Revelation, 14:6-7; Osborne, Revelation, 14:6-7).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선언한다(14:8; 사 21:9). 요한의 첫 독자에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권력과 부와 음행으로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모든 도시와 세계 체제를 포함한다. 그 멸망은 17-18장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바벨론이 나라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듯이, 셋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경고한다(14:9-10).

그들은 어린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며 밤낮 쉬을 얻지 못한다(14:10-11; 사 34:9-10). 이 표현을 가볍게 약화해서는 안 된다. 최종 심판이 실제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영원히 거부한 죄의 결과가 엄중함을 보여 준다. 형벌의 정확한 성격을 상징 언어보다 더 세밀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짐승과의 일시적 평안을 위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지 말라는 경고는 분명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또는 예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14:12). 이어 성령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며 그들의 행위가 뒤따르기 때문이다(14:13; 6:11; 단 12:13). 행위가 구원의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양을 믿는 참된 믿음이 충성된 삶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짐승의 추종자는 쉽이 없지만 주 안에서 죽는 성도는 참된 쉬를 얻는다.

6. 땅의 추수와 진노의 포도주 틀 (14:14-20)

흰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이가 금관을 쓰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앉아 있다(14:14; 단 7:13).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추수할 때가 왔다고 외치자 인자가 낫을 휘둘러 땅을 거둔다(14:15-16; 욥 3:13). 이 첫 추수를 의인의 구원으로 보는 견해와 뒤의 포도 추수처럼 악인의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첫 열매인 성도와 이어지는 진노의 추수가 대조되는 흐름에서는 구원받을 백성을 모으는 추수로 볼 수 있지만, 둘 다 최종 심판의 두 측면을 보여 준다고 열어 둘 수 있다(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다른 천사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포도주 틀이 성 밖에서 밟히고 피가 말굴레까지 닿아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진다(14:17-20; 사 63:2-6; 욥 3:13; 계 19:15). 천육백은 약 300킬로미터의 거리로 볼 수도 있으나, 넷의 제곱에 백을 곱한 상징적 수로 심판의 광범위함과 완전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장면은 폭력을 즐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와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피할 수 없고 철저함을 보여 준다. 성도는 두려움 때문에 짐승과 타협하지 않고 어린양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

7.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15:1-4)

요한은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본다. 이 재앙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15:1; 10:7). 이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곁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들고 서 있다(15:2). 짐승이 그들을 죽였을 수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짐승을 이겼다. 유리 바다는 4장의 보좌 앞 바다이면서,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를 떠올리게 한다(출 14-15장).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15:3). 두 노래가 별개의 노래라기보다 옛 출애굽과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이 하나의 구원 이야기임을 나타낸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는 찬양은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 시편과 선지서의 언어를 결합한다(출 15:11; 신 32:4; 시 86:9-10; 111:2-4).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끄러워해야 할 잔혹함이 아니라, 악을 끝내고 순교자의 피를 신원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다.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15:4; 시 86:9; 98:2). 성도는 개인적 보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과 폭력을 끝내고 창조를 회복하시는 공의를 찬양한다.

VII. 일곱 대접: 완성되는 하나님의 진노 (15:5-16:21)

1. 증거의 장막에서 나온 일곱 천사 (15:5-8)

하늘에서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온다(15:5-6). 증거의 장막은 언약의 돌판을 둔 성막을 가리키며, 뒤따르는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적 거룩함에 근거함을 보여 준다(출 25:16; 38:21; 민 1:50). 맑고 빛난 세마포와 가슴의 금띠를 두른 천사들은 제사장과 1장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한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대접을 천사들에게 준다(15:7). 이 대접은 성도의 기도를 담았던 금대접과 연결되며, 대접 심판이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최종 응답임을 암시한다(5:8; 6:9-10).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고 재앙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15:8; 출 40:34-35; 사 6:4). 이제 중보의 시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최종 심판을 누구도 막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처음 네 대접과 의로운 보응 (16:1-9)

성전의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한다(16:1).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킨다(16:2; 출 9:8-12; 신 28:35). 둘째 대접으로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어 모든 생물이 죽고, 셋째 대접으로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16:3-4). 나팔 심판에서는 삼분의 일만 해를 받았지만 이제 제한이 사라져 최종성이 강조된다.

물을 맡은 천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롭다고 찬양한다.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쏟았으므로 하나님이 피를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다(16:5-6; 사 49:26). 제단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응답한다(16:7).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기도가 마침내 신원된다(6:9-10). 이는 인간이 사적 복수를 행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라, 보응을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길 근거이다(롬 12:19).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16:8).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16:9). 7장에서 성도에게 해가 상하지 못한 것과 대조된다(7:16). 출애굽의 바로처럼 반복된 심판은 완고한 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죄와 우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3. 짐승의 보좌와 아마겟돈 (16:10-16)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져 그 나라를 어둡게 한다(16:10). 이는 출애굽의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반영하며, 사탄의 왕국이 참빛을 거부한 결과를 보여 준다(출 10:21-29).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16:10-11). 고통이 회개를 보장하지 않으며,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한다.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에 쏟아져 강물이 마르고 동쪽 왕들의 길이 준비된다(16:12). 구약에서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과 바벨론의 물을 마르게 하신 장면이 반영되지만, 여기서는 왕들이 최종 전쟁에 모이는 길이 된다(출 14:21; 수 3:16; 사 11:15; 렘 51:36).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나와 이적을 행하며 온 세상의

왕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으로 모은다(16:13-14). 거짓된 삼위일체는 정치 권력과 거짓 종교와 기만적인 표적으로 세상을 결집한다.

그 사이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다(16:15; 3:2-4, 18). 옷을 지킨다는 것은 짐승의 거짓과 바벨론의 음행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받은 의로운 신분과 충성을 지킨다는 뜻이다. 종말 전쟁을 해석하는 목적은 군대의 이동을 계산하는 데 있지 않고 교회가 깨어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더러운 영들은 왕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모은다(16:16). 아마겟돈은 일반적으로 “므깃도의 산”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므깃도에는 뚜렷한 산이 없고, 구약에서 므깃도는 여러 결정적 전쟁과 죽음의 기억을 가진 장소이다(삿 5:19; 왕하 23:29; 슥 12:11). 그러므로 이를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현대 군사전으로만 제한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인 세상 권세가 마지막에 패배하는 상징적 전쟁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욥 3:2; 슥 3:8). 전쟁의 실제성과 최종적 집중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승패는 이미 어린양의 십자가로 결정되었다(Beale, Revelation, 16:16; Osborne, Revelation, 16:16).

4. 일곱째 대접과 바벨론의 붕괴 (16:17-21)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 성전 보좌에서 “되었다”는 큰 음성이 나온다(16:17). 공중은 사탄이 권세를 행사하는 영역으로 표현되므로, 이 대접은 악의 통치 전체에 대한 최종 심판을 나타낸다(엡 2:2). “되었다”는 선언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집행되고, 새 창조의 “다 이루었도다”로 이어짐을 보여 준다(요 19:30; 계 21:6).

번개와 음성과 우레, 전례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은 세 부분으로 갈라지며 여러 나라의 성들이 무너진다(16:18-19). 하나님은 큰 바벨론을 기억하여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신다(14:8, 10). 섬은 달아나고 산은 사라지며 무거운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진다(16:20-21; 겔 38:19-22).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의 종말 장면이 다시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대접 심판은 같은 최종 심판을 절정의 관점에서 보여 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박 재앙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모독한다(16:21).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족해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지를 드러낸다. 17-20장은 여기서 짧게 선포된 바벨론·짐승과 거짓 선지자·용의 멸망을 역순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교회는 이미 이루신 어린양의 승리를 믿으며, 거짓 표적과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고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

VIII. 바벨론과 두 짐승의 멸망 (17:1-19:21)

1.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 (17:1-18)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 준다(17:1). 땅의 왕들은 그와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17:2). 음녀는 21장의 어린양의 신부와 의도적으로 대조된다(17:1; 21:9). 언약의 사랑을 버리고 권력과 우상과 거래하는 도시와 공동체가 음녀의 모습을 가진다. “많은 물”은 그가 지배하는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을 뜻한다(17:15; 램 51:13).

요한은 “성령 안에서”[엔 프뉴마티③] 광야로 이끌려가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본다(17:3). 짐승은 13장의 바다 짐승처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신성모독의 이름으로 가득하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지만 손의 금잔 안에는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17:4; 램 51:7). 겉의 아름다움과 안의 부패가 대조된다. 이마에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17:5-6).

요한의 첫 독자에게 “큰 바벨론”과 일곱 산 위의 여자는 분명히 로마를 떠올리게 했다(17:9, 18). 그러나 바벨론을 로마 한 도시에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치·경제·종교·문화의 화려함으로 사람을 유혹하며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 도시의 전형이다(Beale, Revelation, 17:1-6). 구약에서 음녀가 배교한 예루살렘을 가리킨 경우도 있으므로, 그 상징은 세속 제국뿐 아니라 세상과 결합한 배교 공동체에도 경고가 된다(램 2:20-3:10; 겔 16장). 바벨론을 오직 예루살렘으로 보는 부분 과거주의 해석은 구약 배경을 설명하지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1세기 문맥에서는 로마가 더 직접적이다(17:18).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17:8). 그리스도의 죽음·부활·재림을 모방하지만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며 동시에 일곱 왕이다(17:9-11). 이를 특정 로마 황제 일곱 명의 명단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어디서 계산을 시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로마의 일곱 언덕과 황제들을 일차 배경으로 인정하면서도, 일곱이라는 수가 역사 속에 반복되는 제국 권력의 충만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마지막에 악이 새롭고 강한 “여덟째” 모습으로 나타나도 앞선 짐승과 같은 성격이며 반드시 멸망한다(Beale, Revelation, 17:8-11; Aune, Revelation 17-22, 17:9-11).

열 뿔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왕권을 받을 열 왕이다(17:12). 그들은 한뜻으로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양과 싸우지만,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므로 이긴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자들도 그와 함께 이긴다(17:13-14). 세상 권세의 연합은 강해 보여도 “한 시간”에 불과하며, 성도의 정체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끝까지 나타나는 충성에 있다.

놀랍게도 짐승과 열 뿔은 마침내 음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사른다(17:16; 겔 16:37-41). 악은 연합하는 듯하다가 탐욕과 증오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말쑤이 성취될 때까지 왕권을 짐승에게 주게 하신다(17:17). 이는 하나님이 악의 죄악된 동기를 만들어 내신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자발적 탐욕과 분열까지 주권적으로 사용하여 공의로운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이다. 가장 강한 박해의 순간에도 역사의 주도권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2.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몰락 (18:1-24)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외친다(18:1-2; 사 21:9). 화려했던 성은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의 처소가 된다. 나라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왕들은 그와 결탁했으며 상인들은 사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18:3). 바벨론의 죄는 개인의 사치만이 아니라 정치 권력·우상숭배·경제적 착취가 서로 결합하여 사람과 창조세계를 소비하는 체제이다.

하늘의 음성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명한다(18:4; 렘 50:8; 51:6). 반드시 물리적으로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이라기보다 그 가치관과 우상적 거래에서 분리되라는 언약적 부름이다. 교회가 세상 안에서 일하고 거래하더라도 탐욕과 불의와 인간 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후 6:14-17; 엡 5:11).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신다(18:5).

바벨론은 자신을 여왕이라 하며 결코 애통하지 않으리라고 자랑하지만,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의 재앙이 “하루”에 닥친다(18:6-8). 두 배로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나치게 보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배상 원리에 따른 충분하고 완전한 보응을 뜻한다(출 22:4, 7, 9). 바벨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만큼 심판을 받는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므로 멸망은 갑작스럽고 확실하다.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은 멀리 서서 바벨론을 위해 애가를 부른다(18:9-19). 그러나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사람의 고통이나 자기 죄가 아니라, 부와 시장과 이익을 잃었기 때문이다. 상품 목록은 금과 보석, 향품과 음식, 가축과 수레를 지나 마침내 “사람의 몸과 영혼”에 이른다(18:12-13). 바벨론 경제는 사람까지 상품으로 만든다(Mounce,

Revelation, 18:11-13). 이 본문은 노예무역의 현실을 직접 폭로하면서, 오늘날에도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난한 자·이주민·성적 대상과 인간 생명을 소비하는 경제의 우상성을 분별하게 한다.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는다(18:20). 이는 인간의 고통을 잔인하게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를 심판하고 죽이던 세력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셨음을 기뻐하라는 뜻이다.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바벨론이 이처럼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18:21; 렘 51:63-64). 음악과 산업과 맷돌과 등불과 혼인의 소리가 사라진다(18:22-23). 상인들의 교만, 만국을 미혹한 복술[파르마케이아], 선지자와 성도와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한다(18:23-24). 화려함에 취한 도시는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마침내 침묵만 남긴다.

3. 어린양의 혼인 잔치 (19:1-10)

바벨론의 애가와 대조하여 하늘의 큰 무리는 “할렐루야”를 외친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음행으로 땅을 타락시키고 종들의 피를 흘린 큰 음녀를 심판하신 그의 판단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19:1-3; 6:10; 15:3; 16:7).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며 보좌에 엎드린다(19:4).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한다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일이 아니라, 거짓과 살인을 끝내고 억울한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물과 큰 우레 같은 음성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외치며 어린양의 혼인 때가 왔음을 기뻐한다(19:5-7; 대상 16:31). 음녀 바벨론과 달리 어린양의 신부는 자신을 준비했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 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들”이다(19:8). 신부가 준비하지만 옷은 “주어졌다.” 구원과 정결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충성된 행위로 열매 맺는다(사 61:10; 엡 5:25-27).

천사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되다고 선언한다(19:9; 눅 14:15). 신부와 초대받은 자는 서로 다른 구원 집단이라기보다 교회의 복을 두 이미지로 묘사한다. 요한이 천사에게 옳드려 경배하러 하자 천사는 자신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종이라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막는다(19:10; 22:8-9).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예언의 중심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Beale, Revelation, 19:10; Osborne, Revelation, 19:10).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사와 은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 (19:11-21)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이가 나타난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신다(19:11; 3:14; 시 96:13). 불꽃 같은 눈과 많은 왕관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과 참된 왕권을 나타낸다(19:12). 자신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알면서도 그 존재의 신적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는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19:13; 요 1:1).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로 불지, 이사야 63장처럼 대적을 심판하며 묻은 피로 불지에는 전해가 갈린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옷에 피가 있다는 점에서는 어린양 자신의 희생의 피가 승리의 근거임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Beale, Revelation, 19:13; Mounce, Revelation, 19:13).

하늘 군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른다(19:14). 이들은 천사일 수도 있고 19:8의 옷을 입은 성도일 수도 있으며, 두 무리를 함께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승리를 이루는 무기는 군대의 손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나라들을 치고, 그가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19:15; 사 11:4; 시 2:9).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은 황제와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다(19:16; 17:14).

한 천사는 모든 새를 “하나님의 큰 잔치”로 불러 왕과 장군과 모든 계층의 대적의 살을 먹게 한다(19:17-18; 겔 39:17-20).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거부한 자들에게 남는 무서운 반대 잔치이다. 짐승과 땅의 왕들과 군대가 전쟁하려고 모이지만 치열한 전투조차 묘사되지 않는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붙잡혀 산 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씀의 검으로 패한다(19:19-21).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은 불확실한 접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승리이다.

IX.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 (20:1-15)

1. 사탄의 결박과 성도들의 통치 (20:1-6)

20장을 19장 뒤에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시대로 읽는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최후 심판까지를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여 주는 환상으로 읽는지에 따라 천년왕국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19:17-21과 20:7-10은 모두 에스겔 38-39장을 배경으로 온 세상의 대적이 전쟁을 위해 모이지만 실제 싸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런 반복은 20장이 19장 이후의 새로운 전쟁이라기보다 같은 교회 시대와 마지막 전쟁을 더 깊이 설명한다는 해석에 힘을 준다(Beale, Revelation, 19:17-20:10). 그러나 “그리고 내가 보니”라는 환상의 진행과 첫째 부활을 육체적 부활로 보는 해석에서는 재림 후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시간 순서가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Osborne, Revelation, 20:1-10; Mounce, Revelation, 20:1-10).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한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인봉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 민족들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하며, 그 후에는 잠깐 놓인다(20:1-3). 성도의 가장 큰 원수도 그리스도와 대등하지 않으며 한 천사에게 제압된다. 결박과 해방의 시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사탄의 결박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사건으로 보는 해석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하는 것”으로 설명하신 말씀에 근거한다(마 12:28-29; 막 3:27).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의 통치자가 결정적으로 쫓겨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요 12:31-32; 골 2:15). 이때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탄이 전혀 활동하거나 개인을 속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민족들을 복음의 빛에서 완전히 가두고 마지막 전쟁으로 한꺼번에 모으는 권세가 제한되었다는 뜻이다(Beale, Revelation, 20:1-3). 그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지만 정해진 범위를 넘지 못한다(벧전 5:8; 계 12:12-17).

미래의 천년왕국으로 보는 해석은 현재에도 민족적 미혹과 박해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20:3의 결박이 재림 뒤 사탄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사건이라고 본다. “천 년”도 실제 긴 통치 기간으로 읽는다. 반면 현재적 천년왕국 해석은 계시록의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점과 천 년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기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시 50:10; 90:4; 벧후 3:8). 어느 견해를 취하든 사탄의 권세가 제한되고 마지막 해방은 “잠깐”이며 최종 패배가 확정되었다는 본문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요한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을 본다.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의 영혼을 본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다(20:4; 단 7:9, 22, 27). 순교자만이 별도의 특권층을 이룬다기보다, 죽음까지 충성하여 이긴 모든 성도의 대표로 볼 수 있다(3:21; 6:9; 13:10; 고전 6:2-3). 지상에서 패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으로 신원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선언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20:5). 역사적·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살아났다”와 “부활”의 일반적 의미를 따라 재림 때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하는 사건으로 본다(Mounce, Revelation, 20:4-6; Osborne, Revelation, 20:4-6). 이 경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후 부활하여 심판받는다. 무천년설은 요한이 “영혼들”을 보았고 그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며 둘째 사망을 면한다는 점을 들어,

죽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중간 상태의 하늘 생명과 통치를 첫째 부활로 본다. 일부는 거듭남과 연결하지만, 순교자의 죽음 이후 상태가 문맥상 더 가깝다(Beale, Revelation, 20:4-6; Morris, Revelation, 20:4-6).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되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함께 왕 노릇한다(20:6; 1:6; 5:10). 견해 차이보다 먼저 들려야 할 복음은 이것이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죽기까지 증언을 지킨 성도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시며, 최종 심판은 그들을 정죄하지 못한다.

[부록] 천년왕국 해석과 주요 학자들의 입장

전천년설·무천년설·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 년”과 어떤 시간적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과거주의·미래주의·역사주의·이상주의는 계시록의 환상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묻는다. 두 분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천년설을 판단할 때에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는지만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성격, 사탄의 결박 시점과 범위, 19장과 20장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무천년설 또는 현재적 천년왕국설. 천년왕국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천 년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시작된 통치로 본다. 사탄의 결박은 복음이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일을 막지 못하도록 권세가 제한된 것이며,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마지막에 사탄의 짧은 반역과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사람의 부활과 최후 심판 및 새 창조가 이어진다고 본다. G. K. Beale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년왕국”을 강조하며, William Hendriksen, Dennis E. Johnson, Michael Wilcock, Simon J. Kistemaker와 Leon Morris도 이 흐름에 속한다. Richard Bauckham은 전통적 명칭 하나를 강하게

내세우지는 않지만, 미래의 지상 정치 체제보다 순교자들의 신원과 하늘 통치를 강조하므로 비전천년적·현재적 해석에 가깝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그 후 사탄의 마지막 반역과 불신자의 부활, 최후 심판과 새 창조가 이어진다고 본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다른 두 구원 백성으로 나누거나 환난 전 비밀 휴거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세대주의와 구별된다. George Eldon Ladd가 대표적이며, Robert H. Mounce는 자신의 해석을 “본질적으로 전천년적”이라고 밝히면서도 천 년의 정확한 길이와 왕국의 형태에는 신중하다. Grant R. Osborne과 George R. Beasley-Murray도 역사적 전천년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본다는 설명은 잘못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성도의 육체적 부활로 본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계시록 4장 이후를 주로 마지막 환난과 재림에 관한 미래 사건으로 읽고, 재림 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지상 천년왕국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된다고 본다. 전통적 형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뚜렷이 구분하고 환난 전 휴거, 칠 년 대환난,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의 순서를 강조한다. John F. Walvoord, Charles C. Ryrie, Robert L. Thomas와 John MacArthur가 대표적이다. Buist M. Fanning은 미래주의·전천년설과 환난 전 휴거를 취하지만 묵시문학의 상징과 구약의 모형론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므로 수정된 세대주의적 전천년 해석자로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후천년설.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널리 확장되고 열방 가운데 오랜 영적 번영의 시대가 이루어진 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본다. 천 년은 대체로 복음이 크게 승리하는 긴 시대를 상징한다. Kenneth L. Gentry Jr., David Chilton과 Peter J.

Leithart가 현대의 대표적인 후천년 해석자이다. 복음의 역사적 승리를 강하게 기대하는 장점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속적인 고난과 마지막 반역을 약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새 창조 천년설. Thomas R. Schreiner는 최근 주석에서 첫째 부활을 육체적 부활, 사탄의 결박을 미래의 전면적 무력화로 보면서도 천년왕국을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 창조의 첫 단계로 이해한다. 전천년설과 가까우나 전통적 지상 천년왕국의 난점을 피하려는 견해이며 아직 널리 합의된 표준 입장은 아니다.

David E. Aune, Craig R. Koester, Brian K. Blount, Ian Boxall 등 역사·문학적 분석에 초점을 둔 학술 주석은 저자의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면 특정 천년설로 억지로 분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견해는 다르지만 정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최후 심판, 사탄의 완전한 패배와 새 창조의 영원한 완성을 함께 고백한다. 계시록 20장의 첫 목적은 시간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교자들의 신원, 사탄의 최종 멸망을 선포하는 데 있다.

2. 사탄의 마지막 반역과 멸망 (20:7-10)

천 년이 차면 사탄이 감옥에서 놓여 땅 사방의 민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으로 모은다(20:7-8).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39장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종말의 원수들이며, 여기서는 특정 두 현대 국가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집한 온 세상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므로 교회는 완전히 패배할 것처럼 보인다(20:8-9).

그러나 전투 과정은 전혀 없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미혹하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20:9-10; 겔 38:22; 39:6). 이는 16장의 아마겟돈과 19장의 백마 탄 그리스도의 전쟁과 같은 최종 패배를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탄은 성도를 삼키려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불이 그의 군대를 삼킨다(12:4; 20:9). 악의 마지막 발악은 크지만 짧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즉각적이며 영원하다.

3. 크고 흰 보좌와 둘째 사망 (20:11-15)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자리를 찾지 못한다(20:11; 16:20; 21:1).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성부로 볼 수도 있고, 심판 권한을 받으신 성자로 볼 수도 있다(요 5:22, 27). 계시록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를 긴밀히 결합하므로 한 분을 다른 분과 분리하려는 것이 환상의 초점은 아니다. 흰 보좌는 티 없이 공의로운 최종 재판을 나타낸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고 책들이 펴지며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펼쳐진다(20:12; 단 7:9-10; 12:1-2).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공개적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마 16:27; 롬 2:6-8; 약 2:18). 생명책은 구원이 오직 어린양에게 속한 은혜임을 보여 준다. 모든 사람이 이 심판 앞에 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가 맺은 열매로 인정받는다(요 5:24; 롬 8:1; 계 19:8).

바다와 사망과 음부[하데스]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20:13). 아무도 죽음 뒤에 숨지 못하며 잊힌 사람도 없다. 이어 사망과 음부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은 둘째 사망이다(20:14; 고전 15:26). 이는 육체의 죽음이 영원히 폐지되고, 죽음의 모든 권세가 최종적으로 심판받ند다는 뜻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도 불뭇에 던져진다(20:15). 최후 심판을 확신하는 성도는 세상의 일시적 인정과 안전을 위해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여 죄와 싸우며 어린양을 따라간다.

X.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21:1-22:5)

1.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21:1-8)

요한은 새[카이노스] 하늘과 새[카이노스] 땅을 본다. 처음[프로토스]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21:1; 사 65:17; 66:22). [카이노스]는 단순히 시간상 최근이라는 뜻보다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을 강조한다. 옛 창조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우주가 창조되는지, 정화되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지에는 견해가 갈린다. “처음 하늘과 땅이 지나갔다”는 말은 단절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창조의 회복과 연속성을 강조한다(21:5; 롬 8:19-23; 벧후 3:10-13).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폐기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죄와 죽음을 제거하여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신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새 창조에 큰 물이 전혀 없다는 지리적 정보만은 아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짐승이 올라오고 죽은 자를 품으며 혼돈과 악과 죽음을 상징했다(13:1; 20:13). 새 창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과 위협이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명수의 강은 여전히 흐르므로 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22:1).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21:2; 3:12). 구원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 땅을 떠나 영원히 비물질적인 하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창조 가운데 거하시며 하늘의 성이 내려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장소이면서 어린양의 신부인 구원받은 공동체를 상징한다(21:9-10; Mounce, Revelation, 21:9-21).

보좌에서 큰 음성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선포한다(21:3).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다(레 26:11-12; 랍 31:33; 겔 37:26-27). 새 창조의 가장 큰 복은 아름다운 도시나 고통의 부재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친히 닦으시며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게 하신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21:4; 사 25:8; 계 7:17). 이는 과거의 상처를 하찮게 여기거나 기억을 기계적으로 지운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억울함을 바로잡고 상처를 치유하여 다시는 눈물의 원인이 생기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이 위로는 어린양이 먼저 죽음과 통곡을 담당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히 5:7; 계 1:5, 18).

보좌에 앉으신 이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현재형으로 선언하며,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므로 기록하라고 하신다(21:5; 3:14; 22:6). 새 창조는 미래에 완성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사역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후 5:17).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선언은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구속과 심판을 반드시 완성하심을 보증한다(21:6; 1:8; 16:17).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며,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21:6-7; 사 55:1; 삼하 7:14). 값없는 은혜와 끝까지 이기는 믿음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은혜로 생명수를 받은 사람이 어린양을 붙들고 인내하여 상속자의 삶을 산다. 반대로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우상숭배와 거짓을 고집하는 자의 몫은 불못인 둘째 사망이다(21:8).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언약하여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사람보다, 박해가 두려워 짐승에게 충성하고 끝내 믿음을 버린 사람을 가리킨다.

2. 어린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21:9-21)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한다(21:9). 이는 같은 천사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 준 장면과 대조된다(17:1). 요한은 “성령 안에서”[엔 프뉴마티④]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려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본다(21:10; 사 2:2-3; 겔 40:2). 음녀는 광야에서 짐승을 타고 있지만 신부는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채 내려온다.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며 그 광채가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다(21:11).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문이 있고 문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열두 기초석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21:12-14; 겔 48:30-35; 엡 2:20). 이는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의 사도적 교회가 서로 다른 두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 준다. 문마다 천사가 있지만 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21:12, 25).

천사는 금 갈대로 성과 문과 성벽을 측량한다(21:15). 측량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와 완전한 질서를 나타낸다(11:1-2; Osborne, Revelation, 21:15-17).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각각 일만 이천 스타디온으로 같아 거대한 정육면체를 이룬다(21:16). 이는 문자적인 도시 규모를 계산하게 하기보다, 정육면체였던 지성소가 온 성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왕상 6:20; Beale, Revelation, 21:15-21).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이며 모든 성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성벽은 백사십사 규빗이고 벽옥으로,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21:17-18). 기초석은 여러 보석으로 꾸며지고 열두 문은 각각 한 진주이며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이다(21:19-21).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흉패와 에덴, 회복될 시온의 약속을 함께 떠올린다(출 28:17-20; 사 54:11-12; 겔 28:13). 이 묘사는 천국의 재료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신부의 아름다움과 고귀함, 완전한 정결을 상징한다.

3. 성전과 밤이 없는 성 (21:22-27)

새 예루살렘에는 별도의 성전이 없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21:22). 성전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온 성이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 때문이다(요 2:19-21). 해나 달의 빛도 필요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양이 등불이 되신다(21:23; 사 60:19-20). 모든 피조물의 빛은 창조주와 구속주의 영광에 의존한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성으로 가지고 들어온다(21:24, 26; 사 60:3-5). 계시록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과 “왕들”이 모두 자동으로 구원된다는 만인구원론이 아니다. 어린양의 피로 모든 민족에서 속량받은 사람들과,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들이 새 창조 안에 참여한다(5:9; 7:9). 문화와 창조의 참된 영광은 파괴되지 않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러진다.

성문은 낮에 닫히지 않고 밤이 없다(21:25). 원수와 위험이 없으므로 방어를 위해 문을 잠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며,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21:27). 완전히 열린 문과 완전히 정결한 성은 모순이 아니다. 모든 악이 최종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안전과 거룩함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4.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22:1-5)

천사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 준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하나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른다(22:1; 겔 47:1-12; 속 14:8). 단수로 표현된 한 보좌는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없애지 않으면서 그들의 하나 된 신적 통치와 생명의 근원을 보여 준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와 성령의 사역도 이 완성된 생명의 배경이 된다(요 7:37-39).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료한다(22:2; 창 2:9; 겔 47:12; 계 2:7). 한 나무가 강 양편에 있다는 표현은 생명나무를 집합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성하게 늘어진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새 창조에 질병이 남아 계속 치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민족에게 완전하고 지속적인 건강과 온전함을 준다는 상징이다. 아담의 죄로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다시 열린다.

다시는 어떤 저주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성 가운데 있으며 종들이 그를 섬긴다(22:3; 창 3:14-19; 속 14:11). “섬기다”는 말은 예배와 제사장적 봉사를 포함한다. 새 창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료함이 아니라, 죄와 수고의 저주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창조의 사명을 완성하는 삶이다(창 2:15; 계 7:15).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이름이 이마에 있다(22:4). 죄인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구원의 절정이며, 그 이름은 완전한 소유와 관계와 답음을 나타낸다(출 33:20; 마 5:8; 요일 3:2).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하지 않으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 한다(22:5). 첫 창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섬김과 왕적 다스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성취된다(창 1:26-28; 계 1:6; 5:10).

XI. 에필로그: 내가 속히 오리라 (22:6-21)

1.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22:6-11)

천사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고 선언한다(22:6; 21:5). 주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는 1:1-3과 평행하여 책 전체를 감싼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22:7). 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결과는 낱짜 계산이나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다.

요한은 이 환상을 듣고 본 증인임을 밝히지만, 다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한다(22:8; 19:10). 천사는 자신도 요한과 선지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종이라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명한다(22:9). 놀라운 환상과 천사조차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일 뿐이다. 참된 계시는 전달자나 체험을 숭배하게 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만 예배하게 한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요한은 때[카이로스]가 가까우므로 이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22:10; 단 12:4, 9).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마지막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는 말은 죄를 허락하는 명령이 아니다(22:11). 다니엘 12:10처럼 계시가 사람의 완고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굳힌다는 엄중한 선언이다. 말씀을 들을 때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2. 상을 가지고 오시는 알파와 오메가 (22:12-17)

예수님은 다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신다(22:12; 사 40:10; 62:11; 마 16:27). 재림은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면서 충성된 종에게 상을 주고 억울함을 신원하는 날이다. 구원이 행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는 믿음의 진실을 드러내며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의 수고를 중요하게 여기신다(14:13; 19: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칭호가 예수님께 적용된다(22:13; 1:8, 17; 21:6). 이는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와 함께 창조와 역사의 시작과 완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22:14; 7:14). 정결의 근거는 어린양의 피이며, 그 피로 씻은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자신이 성에 속했음을 나타낸다.

개들과 복술자와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성 밖에 있다(22:15; 21:8, 27). 이는 새 창조 바깥에 악인의 공동체가 영원히 별도 도시를 이룬다는 지리적 묘사라기보다, 그들이 거룩한 성과 생명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언약적 표현이다. “개들”을 특정 민족 전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고집하는 자를 가리키는 경멸적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신 23:18; 빌 3:2).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 이 일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밝히신다(22:16; 민 24:17; 사 11:1, 10). 그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근원이면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메시아이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날을 알리는 새벽 별처럼 그분의 오심은 새 창조의 완성을

알린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고 말하고 듣는 자도 “오라”고 응답한다(22:17). 이는 한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구하는 부름이며,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목마른 사람을 생명수로 초대하는 복음의 부름이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사 55:1; 요 7:37-38; 계 21:6). 교회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시에, 그날까지 모든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는 생명을 전한다.

[부록] 계시록의 일곱 복 계시록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1:3),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14:13),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복(16:15),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복(19:9),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20:6), 이 책의 예언을 지키는 자의 복(22:7),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의 복(22:14)이 선포된다. 이 일곱 복은 계시록의 복이 단순한 종말 지식에 있지 않고, 어린양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새 창조에 참여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3.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22:18-19)

요한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누구든지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재앙을 더하시고, 말씀에서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몫을 제하실 것이다(22:18-19). 이는 신명기에서 언약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한 경고를 이어받는다(신 4:2; 12:32). 일차적으로 요한계시록 자체를 변조하거나 그 메시지를 자기 목적에 맞게 바꾸지 말라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전체를 겸손히 받고 보존해야 한다는 원리도 보여 준다.

이 경고는 사소한 필사 실수나 해석의 모든 차이를 곧 구원 상실로 정죄하는 말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예언을 왜곡하여 회개와 충성의 요구를 없애거나, 성경이 말하지 않은 종말의 비밀을 덧붙여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를 경고한다. 계시록의 상징을 자의적으로 현대 사건에 맞추거나 자기 집단의 권위를 높이는 암호로 만드는 것도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야 한다.

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20-21)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다(22:20).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한다. 이는 아람어 기도 “마라나타”와 같은 초대교회의 소망이다(고전 16:22). “속히”는 인간의 조급한 시간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약속이 지체되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언제든 완성될 수 있다는 확실성을 나타낸다(벧후 3:8-13).

계시록의 마지막 말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22:21). 심판을 경고하고 끝까지 충성을 요구하는 모든 말씀도 어린양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다. 이 은혜로 교회는 바벨론의 유혹을 거절하고 짐승의 위협을 견디며, 어린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다린다.

요한계시록 해설

판권

발행 | 2026년 8월 16일

저자 | 최용진

펴낸이 | 최용진

펴낸곳 | 갓플리징북스

출판사등록 | 2011.11.30.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71번길 18-7

전화 | 070-8065-4818

이메일 | thaigodpleasing@naver.com

ISBN | 979-11-91518-57-3

정가 | 5,000원

© 최용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저자소개

최용진 선교사는 칼빈신학교(용인)와 총신대학원(예장합동, M.Div.)을 졸업하고 부교역자 사역을 하다가, 2010년 성남노회에서 국내 이주민 사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후 전남 광주에 갓플리징(God-Pleasing) 다문화교회를 개척하여 10여 년간 섬겼고, 2020년 갓플리징교회의 파송을 받아 태국으로 나아갔다. 현재는 GMS 선교사로 태국 우돈타니(북동부)에서 교회개척과 문서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 66권 해설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교사』, 『은혜의 교리』 등이 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 풀어낸
쉽고 균형 잡힌 해설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값 5000 원



9 791191 518573

ISBN 979-11-91518-57-3 (PDF)